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3. 28(목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 에너지혁신정책과
담당과장	박덕렬 과장(044-203-5690) 박재영 과장(044-203-5120)	담 당 자	김기열 사무관(044-203-5694) 송용식 사무관(044-203-5122)

산업부 장관, 한·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 본격화

-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장·에너지국장과 양국간 산업·자원 현안 논의 -

□ 성윤모 **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.27(수)**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**장 마오**(張茅, Zhang Mao) **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**(장관)과 **장젠화**(章建華, Zhang Jianhua) **국가에너지국장**(장관)과 **연이어 면담**을 갖고 아래와 같이 **논의**했다.

《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(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長) 면담 》

양측은 **제품의 인증·표준·안전, 지재권 보호,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**에서 **협력을 확대**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, **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**하기로 합의

□ 양측은 이제 **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고도화가 중요한 시점인 바**, 세계적인 산업변화에 맞는 **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**가 있다는데 **공감대를 형성했다.**

○ 우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**인증·표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**하고,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**제품안전 사후관리 분야**(전기용품, 어린이제품 등)**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**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.

○ 이를 위해 **양 기관간 양해각서(MOU)**를 포함해 **정기 협력채널 마련, 위해제품 차단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, 기술 및 전문가 상호교류**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**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**

□ 양측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**새로운 기술이 접목**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**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**했다.

○ 특히, 성 장관은 **신에너지차는 양국 모두 신산업 육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**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서 **핵심부품의 인증·표준, 안전기준 등의 교류·협력을 강화**해나간다면 **글로벌 시장을 선도**해 나갈 수 있음을 부각했다.

○ 이와함께, 수소차 분야에서 현재 **수소연료탱크 인증 기준 미비**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**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언급**하면서 **양국 간 조속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**

□ 장 국장은 **우리나라의 수소차 현황 및 기술수준 등에 관심을 표명**하고 **수소차와 같은 청정에너지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**하며 **기술적 요건들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**

□ 아울러, 성 장관은 **중국 내에서 한국상품의 모방 판매, 반도체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, 현대중공업-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**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도 언급하면서 중국 **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.**

○ 이에 장 국장은 **모든 사안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**하고 **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**

《 국가에너지국장(國家能源局長) 면담 》

양측은 **전력망 연계, 천연가스, 재생에너지, 에너지 신산업**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협력 잠재력을 확인**하고 **구체적 성과사업을 진전**시켜 나가기로 함

□ 우선 우리의 **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중국의 일대일로**는 동북아 지역내 **전력망 연계**를 통해 에너지 공동체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,

○ 양국 **에너지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한-중 전력망 연계 사업의 성공**을 위해 **(한)한전-(중)국가전망 간 공동개발협약*(JDA, Joint Development Agreement)를 조만간** 체결하고,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**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**

* 해양경과지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·운영체계·비용부담 합의

<한중 전력연계 사업 개요>

▶ 목표 :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통한 독립계통 한계 극복

용 량	투자비	거 리	경 로
2.4GW	2.9조원~3.3조원	374km	(中) 웨이하이 ~ (韓) 수도권 서부

▶ 주요경과 : 한(산업부)-中(국가에너지국) 전력연계 사업개발 MOA 체결('17.12)
한(한전)-中(국가전망)-국제기구(GEIDCO) Review Study('18.4~10),
한(한전)-中(국가전망) 공동개발협약(JDA) 체결 준비중

○ 아울러 세계 2·3위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국인 한·중이 협력해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, 액화천연가스 계약조건 개선, 수급위기 공동대응 등 **동북아 및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**해 나가기로 했다.

* 한중일 정상회담('18.5.9)계기, 향후 3국 정부 간 LNG 협력 MOU 추진키로 합의

** '18년도 LNG수입량(백만톤, 비중): ①日(83, 26%) ②中(54,17%) **③韓(44,14%)**

□ 또한, 성 장관은 양국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**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·중의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,**

○ 그 동안 양국 발전기업 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인력·정보·기술 교류를 **'한-중 발전기술 공동포럼*'**을 통해 **체계화·정례화** 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, 중국측이 이에 합의했다.

* 양국 정부, 발전기업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포럼으로 향후 개최될 **제2차 한-중 에너지 협의회('19 하반기, 중국)와 연계**하여 추진할 계획

○ 이를 통해 양국은 **석탄 화력 발전 설비 및 환경설비**(탈황, 탈진, 집진설비)에 대한 **교류를 체계화**하고 **발전설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공조**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양국 에너지 협력이 **수소경제 등 에너지 미래 산업 창출**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히고,

○ 양국이 **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***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**연료전지분야, 국제표준 공동 대응, 기관간 교류**** 등 협력을 통해 **양국의 양적·질적인 경제성장**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.

* (한국)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('19.1월)
(중국) 정부공작보고서(Government Work Report, '19.3.15일 양회에서 통과)에 최초로 "수소충전소 및 수소에너지 설비 확대" 언급 → 구체적 정책은 추후 발표 예상

**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(한)'H_2Korea' - (중) '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'(IHFCA)의 협력사업 확대 등

□ 이에 장젠화 국장은 **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필요성에 동감**하며,

○ 양국간 2017년 정상회담 이후로 **에너지 협력이 활발히 진행**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**정부를 비롯한 기업·연구기관 등 민간 영역까지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**한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기열 사무관(044-203-5694), 에너지혁신정책과 송용식 사무관(044-203-51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